

대구·경북

# 대구·경북 : 도시 공간 재창조와 낙동강 살리기

임 호 | 영남일보 기자

**랜**드마크(land mark)는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도쿄의 도쿄미드타운, 런던의 타워브리지, 파리의 에펠탑 등 세계적인 도시에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경북은 랜드마크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우리만의 랜드마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다.

## 동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목을 끌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동대구 환승센터 및 동대구 역세권 개발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대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동대구 역세권 개발은 대구시 동구 신암·신천동 일대 48만 9,000㎡에 사업비 2조 3,446억 원을 투입해 역사 시설, 상업(숙박, 백화점 등)·문화·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기본 구상을 시작해 2016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세권 개발이 거액의

민간 자본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신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 이익이 철도 및 지역 경제로 재투자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 북구)이 대표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사업이 구상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꼭 현실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시장은 “동대구 역세권이 완성되면 수성구, 중구 중심의 대구 경제축이 동대구로 옮겨가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비즈니스 벨트의 중심에 동대구 역세권이 자리함에 따라 대구만의 랜드마크도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족형 복합 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이와 함께 대구 동구 봉무동에 들어설 이시아폴리스도 김범일 시장의 민선5기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패션을 테마로 해 조성되는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자족형 복합 신도시로 건설 중에 있다. 그동

안 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경색, 세종시 수정안 파고 등 각종 악재에 떠밀려 좌초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최근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빈 땅'이 많은 산업 및 상업 시설 용지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주거 용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시아폴리스 중앙에 모습을 드러낸 라이프스타일센터. 놀이, 유흥, 주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로 3만 1,000㎡ 대지에, 연면적 8만 5,000㎡ 규모로 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다. 현재 공정률은 29%이며, 내년 5월쯤 오픈할 예정이다. 이곳엔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1,2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 CGV 7개관, 복합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동쪽 영신 초·중·고교 옆에 위치한 대구 국제학교는 지난달 19일 완공됐다. 연면적 1만 2,00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국제학교는 학생 정원이 580명으로, 이달 23일 개교를 앞두고 현재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203명을 선발했다. 국제학교 맞은편에는 한국폴리텍 섬유패션대학 공사가 한창이다. 4층까지 골조가 세워진 상태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최근 공연문화 콘텐츠를 차세대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이시아폴리스에 '공연창작파크'를 조성하고 공연문화진흥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공연창작파크에는 공연의 기획·창작, 제작·보관 기능을 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 경북, 낙동강을 랜드마크로

경북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도청 이전 사업

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 확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경북도 입장에서는 중단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할 핵심 사업이다. 민선 5기에 접어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단 한번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2011년 마무리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포스트 낙동강 살리기의 핵심에는 경북도가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낙동강 생활권 그랜드플랜'이 자리하고 있다. 현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경기 활성화와 물길 살리기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 사업은 낙동강 경제권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6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산학협력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낙동강 생활권 그랜드플랜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2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할 계획이다. 그랜드플랜에는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담수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단지’가 있다. 최근 3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담수 미세조류를 활용, 에너지 오일을 개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무균질실과 소규모 실증배양장 등이 갖춰진 연구센터가 들어선다. 특히 연구개발 단지 내에 친환경에너지원센터를 만들어 낙동강 에너지 클러스터의 컨트롤 타워로 활용한다.

2011년부터 5년 간 3,000억원을 투입, 낙동강 유역 60만㎡에 조성되는 ‘아시아 신(新)한류 문화 콤플렉스’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드라마와 영화, 대중가요 스타를 활용한 한류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문학·음식·의류·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 경북도는 안동 인근에 풍물거리, 민속체험관, 전시박물관, 낙동강 풍류벚길, 주막촌, 전통시장 등을 조성한다.

같은 기간 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농업자원 관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농업·농촌 모델로 경북 지역 낙동강 하류 일대에 국립 농업자원관 및 아리랑교육농장 건립, 녹색 농업타운 조성 등이 이뤄진다. 국립 생물자원관과 별도로 한국 농업 5천년 자원을 바탕으로 친수·친환경 국립 농업자원관을 건립하는 것도 이 사업의 핵심 전략이다.

내년 1월부터 아름다운 낙동강 풍경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산길과 전망대, 레저 공간을 조성하는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도 추진된다. 450억원이 투입되는 숲길은 낙동강 구담에서 대구 달성보 주변 산림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430km 구간이다. 212km의 파노라마 등산로와 176km의 지선 등산로, 42km의 전망 등산로가 생긴다. 또 산악 자전

거로 낙동강의 7개 명품 보(洑)를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 길도 만들어진다. 숲길이 조성되면 눈으로만 보던 낙동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주변 산림 생태자원과 하회마을, 경천대, 도리사 등 문화 유적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낙동강 수자원 확보를 위해 식수 전용 저수지도 도내 8군데 설치한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9년 간 2,973억원이 투입된다.

### 경북도청 이전

이와 함께 경북도청 이전도 민선 5기 경북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2008년 6월 8일 신도청 소재지로 안동시·예천군 일원이 확정됐다.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1만 965km<sup>2</sup>에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도청과 도의회 청사 등을 건설하게 된다. 28만 8,000m<sup>2</sup>의 부지에 12만 5,000m<sup>2</sup> 규모 청사가 지어져 2014년 6월에 입주하게 된다. 이곳에는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녹색 명품도시가 들어선다. 지난 4월 29일 경북도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며 5월 4일 개발예정지역 고시, 보상에 필요한 현장 사무소 설치 등 이전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도청 이전으로 경북도와 안동, 북부 지역은 폭발적인 변화와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대구와 구미, 포항 등 남부 지역에 편중된 경북권역 발전 축에 북부 지역인 안동이 추가되면서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4각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경북도청과 유관기관 이전은 안동과 예천을 경북의 새로운 정치, 행정의 중심도시로 변모시키고 안동의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과 문화산업도 시너지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ERIK